

보조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꽃피운 산실

한국불교종교진흥원 보조사상선양의 요람... 송광사분원 서울 법련사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수많은 수행자가 배출됐다. 고구려의 승랑, 백제의 겸익, 신라의 원광·자장·원효·의상.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업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고려와 조선시대 역시 많은 수행자가 배출돼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불교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르렀다. 모두 고개 숙여 예경해야 할 선 지사이다.

한국불교사를 공부하면서 고승 가운데 어는 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 고민해봤다. 처한 시대와 활동이 모두 다르고 당시의 영향을 생각하면 모두가 강호의 맹장이라 구별이 어렵다. 종생의 분별심으로 구분해 보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영향력에 있어 보조사상 지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송광사를 중심으로 계승된 보조사상을 보면 역사적 유구함이 크다. 고려시대에는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을 시작으로 면면히 이어져 200년 넘도록 계승됐고, 배불이 심했던 조선조에도 불교의 규범만큼은 보조사상을 따랐다. 중기까지 서산·휴정에 의해 보조가 추구했던 돈오점수, 간화선, 선교일치 등이 계승됐다.

법련화 보살 회사 1995년 현호스님 중창
전서간행, 학술대회 등 불교학 발전기여



보조사상 진영

근대불교에서 가장 보조의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을 재흥하고자 노력한 수행자는 경허였다. 그는 근대불교의 중흥으로 쓰러져 가는 불맥을 유지하기 위해 해인사 조실로 주석하면서 수선사를 결성하고 선의 중흥을 도모했다. 그에게서 법을 배운 만공·한암 역시 절사를 조직하고 선종을 진작시켜 보조사상의 사상을 계승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종풍 계승은 면면히 이어졌다. 그 중심인물이 효봉이었다. 그는 불교 중흥과 선종진작의 뜻을 세웠고, 필요한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2의 정혜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송광사 삼일선원에서 3년의 정혜결사를 시작했다. 이런 결사정신은 구산에 의해 계승돼 송광사에 수선사를 재건, 결사 정신을 되새기는 데 주력했다. 고려·조선·근현대를 걸친 영향이 아닐 수 없다.

보조사상 지눌 이외에도 한국불교에 영향을 끼친 고승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상을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국사의 행적과 사상이 현대화 돼 그 누구보다도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조사상의 현대화·대중화에는 법련사의 역할이 크다.

법련사는 경복궁 오른쪽을 돌아 삼정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곳의 사격은 오래되지 않았다. 1973년 11월 13일 金富全[法蓮華]보살이 종로구 시간동의 대지와 건물을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로 회사하면서 시작했다. 1996년 5월 이후 지금의 대응보전을

갖췄으니 이런 연혁만으로 보면 서울의 어느 사찰보다 미약하다. 그러나 법련사에 담긴 사상적 의미를 음미하면 결코 작지 않다.

이곳은 송광사 서울분원이다. 송광사가 어떤 곳인가? 한국불교의 송보사찰이다. 보조사상 지눌이후 16국사가 배출돼 한국불교 수행의 대명사가 된 곳이다. 이런 까닭에 법련사 역시 그 연원은 짧지만 보조사상의 사상적 유산을 널리 알리려 노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조사상연구원의 활동이다. 연구원은 1987년 2월 송광사에서 창립됐지만 활동 대부분이 국법사에서 이뤄졌다. 그런 까닭에 송광사가 고려·조선·근대를 거쳐 지속된 전통을 계승한 곳이라면 법련사는 그런 보조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고 그 내면을 성찰하는 학술적 꽃을 피운 곳이다.

1987년 2월 22일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종인 불일보조사상의 사상과 가풍을 연구 개발해 정신문화화장달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보조사상연구원을 개원했다. 이것은 보조사상 지눌의 사상을 통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도적 자세였다. 실제 연구원 설립의 취지를 담고 있는 취지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연구원은 자기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우러르는 자주성을 망각한 시대



송보종창 송광사 분원 서울 법련사 전경. 경복궁 옆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이다. 법련사 영산대법전은 기도수행처에서 포교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심사찰 건축의 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법련사에는 불일서점과 불일미술관이 있어 문화의 거리 삼정동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적 경향 때문에 자기네 조상에 대한 학구적인 관심마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런 자세에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대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과 물질 만능의 그릇된 풍조 속에 인간의 진심을 잃은 채 뒤바뀐 가치관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세계의 정신영역 모두가 감각적인 세속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삶의 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사상의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고 그것이 이 땅에 정립되기를 사원했다. 그러면서도 보조를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사상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했다.

연구원은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방향에 있어 첫 번째 보조사상의 사상과 종풍의 연구개발 및 선양을 위한 일과, 보조사상 전서의 간행과 연구논문집의 간행 및 번역 학술발표 등을 했다. 그 결과 1989년 <보조전서>가 간행됐다. 이때 간행된 전서는 지금까지 간행된 보조 저술의 여러 판본을 대조 교열하고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아 하나의 정본(定本)을 만들고 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특기할 것은 수많은 전적을 들추어 가면서 본문에 나오는 인용문의 출처를 밝혀 보조사상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 이후 연구원에서는 1987년 11월 학술지 <보조사>

상> 제1집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 제36집까지 발간하고 있다. 매월 진행된 학술발표회는 100회에 이르렀고, 매년 가을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도 23차례 이르렀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역시 여러 차례 개최되어 보조사상은 물론 한국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보조사상연구원의 활동 때문에 보조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양과 질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1990년대에 이르러 보조를 연구하는 학자의 층이 두터워져 박사학위 논문이 12편이 제출됐다. 그리고 이 시기 연구논문 역시 152편이 발표돼 한국불교계에 보조 연구의 정점을 이루었다. 연구된 내용을 보면 선사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사상의 비교, 돈오점수, 보조의 역사적 위상, 보조와 다른 사상과의 비교 연구, 정혜결사, 조계종 범통에 관한 연구 순이다. 이때 연구의 담당자 대부분이 젊은 연구자였다. 이들은 1987년 설립된 보조사상연구원이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199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불교학자 특히 젊은 학자들에게 보조 연구가 왕성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불교 내에서 보조사상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현대에 이르러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와의 논

쟁에서 보조의 선이 돈오점수를 지향했다고 해서 그 가치를 하향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는 현대 불교 학자들에게 영향을 줄만큼 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1990년대 이르러 한국불교에서 일어난 비승가적 모습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보조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했는지 모른다. 보조는 무인정권 시대에 권력지향적인 불교계에 자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가치는 8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가장 절실한 가치로 인식되어 미래에도 한국불교의 좌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불교가 현대화되고 대중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화, 대중화는 옛 전통을 박제된 모습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언어로 그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련사는 24년의 노력으로 800년 전 인물인 보조사상 지눌을 현대의 대중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한 사찰이다.

한국불교사에는 고승이 많다. 그 고승이 활약한 사찰도 많다. 어느 곳이던 30년 지속해서 연구하면 한 인물이 현대화, 대중화 된다. 어떤 불사보다 뛰어난 불사이다.



김경집/지각대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아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상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